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5 새학기/가족/기도회

가정 : 믿음의 과정

2025.02.24 [월] - 02.28 [금]
| 새벽 6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광림신학교, 광림스쿨

3월부터 채플, 기숙사, 제2교육동, 부대시설 등 건축 공사 시작해

광림교회는 2023년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인 광림미션센터를 봉헌했다.

잠비아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광림미션센터는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잠비아의 미래를 준비하며 그 선교 목표를 향해 활발하게 전진하고 있다. 4,000여 평의 대지 위에 이미 봉헌된 교육센터 내 '광림신학교'와 '광림스쿨'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이다.

잠비아 광림신학교

잠비아 루사카에 2023년 가을학기에 개교한 잠비아 광림신학교는 3년 과정의 신학교이다. 교육 과정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신학교 교수들이 2년간 기초신학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서학, 역사신학, 상담학 등 총 10 과목 중 9과목이 종료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기초신학 강의가 마무리된다.

가을학기부터는 1년간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의 목회신학과 선교학 등의 강의가 이어지며, 2026년 상반기에 30여 명의 첫 졸업생들이 배출될 예정이다.

광림교회 청장년부에서는 2024년 잠비아 광림신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첫 번째 교회 건물을 봉헌하기로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채플 등이 완공되면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접한 8개 국가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해 신실한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미션센터로, 아프리카 중남부 선교의 허브이자 선교사들의 영적 충전을 위한 장소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광림스쿨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에 시작한 광림스쿨은 현재 초등교육 과정 2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매년 한 학년씩 늘려 7학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 초에 잠비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광림 토요 어린이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와 창의 미술로 잠비아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다. 더 많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를 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인 조혼제도와 의료 인식 개선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의 깊은 뿌리 내리

광림교회는 2018년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오랜 기간 기도와 선교 전략을 통해 준비해 왔다. 이후 월드비전과 함께 조혼 피해 소

녀 돌봄 사업, 에이즈 어린이 지원 사업 등을 후원했고, 2021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NGO 법인 광림미션을 설립했다.

2023년 교육센터, 선교사 숙소, 게스트하우스 등 세 개 동을 봉헌한 광림미션센터는 작년 12월 말부터 기숙사 및 식당, 제2교육동과 채플 건축을 위한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새롭게 더 크고 높게 세워진 워터 타워와 우물, 전기, 정화조와 같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기도로 시작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상희 기자

씻고 밝은 눈이 되었더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7)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고,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움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통은 의를 위한 고난도,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당하는 시련도 아닙니다. 어떠한 소망조차 없는 고통이기에 이겨내려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2절).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율적 사상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신적 이해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라는 질문에는 ‘출생 전의 영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된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3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 미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고난을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의 관점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2절)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5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는 어두움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 또한 그의 삶에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요한복음 9:1~9

<p>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면 이 사람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러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p>	<p>(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p>
--	---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절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삶이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두움 안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장과 더불어 성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고통과 고난은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빛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치유와 회복의 손이신 예수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기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위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행동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습니다.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누구도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를 꺼려하지만 예수님은 아픈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만지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 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처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만지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죄의식과 고독함, 외로움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한 번에 날려버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상처를 회복시켜주시는 행동입니다. 사랑의 만지심, 회복과 치유의 만지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했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

하고도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내 눈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창조의 역사’,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실패와 질병,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만지심이 있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이사야 II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사 55:3) - 3월 4일 개강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사 55:3)

2025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3월 4일(화) 개강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의 강의로 5월 27일(화)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에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와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미국 프랭크 와튼 박사가 고안한 성경 공부로 광림교회에서는 1983년 1월 구약총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서를

조명하고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이라는 세 단계의 학습 과정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성서 연구 과정이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나 성서에 관한 해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읽는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기는 이사야II로 지난 학기 이사야I에 이어서 이사야서 32장부터 66장까지를 본문으로 '영약지혜(永約之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패망과 회복 등 모두 유다 왕국에 관계된 내용으로 BC 740년부터

BC 530년 사이에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이다.

트리니티 강의는 일반과정과 강의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를 위한 통신과정이 있다. 강의 등록은 로비에 준비 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4일까지 각 교구 전도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수료자 기준은 결석 4회 미만, 과제물 평균 70점 이상이다.

성도들이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트리니티 강의 시작 전 오전 10시 40분부터 트리니티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성도들과 함께한다. 강의마다 성경 암송 시간이 있어 성도들 앞에서 요절을 암송하면 소정의 선물도 받는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트리니티 봉사위원들은 강의 자료 관리와 과제물 채점을 위해서 헌신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가을 학기에 이어 이번 봄 학기 트리니티 성서 공부를 통해 이사야서 말씀에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확실한 은혜를 받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남선교회총연합회 3월 월례회 및 시상식
2월 23일(주일) 남선교회총연합회 3월 월례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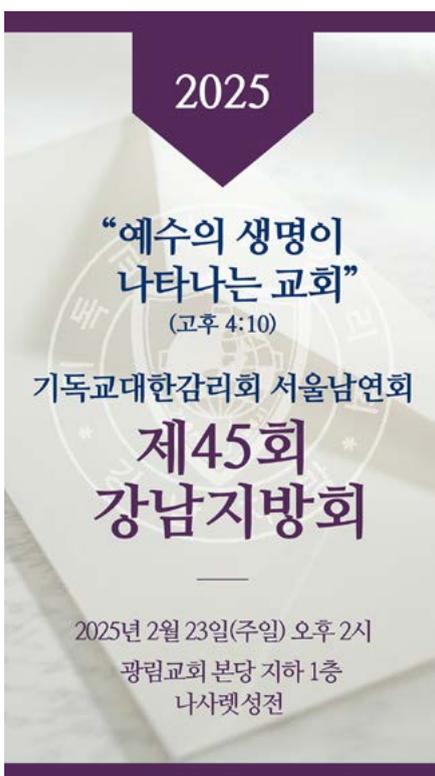
광림실업인선교회 주관 전문인 초청 특강
2월 23일(주일) 경영정보위원회 주관 전문인 초청 특강이 열린다.



K.S.E.C 개강
K.S.E.C(광림평생교육대학원)이 3월 6일 개강한다.

제45회 강남지방회, 시상 및 은퇴장로 찬하예배

2월 23일(주일) 오후 2시, 나사렛성전에서 열려



서울남연회 제45회 강남지방회가 2월 23일(주일) 오후 2시 광림교회 나사렛성전에서 지방회 회원, 구역 대표 및 시상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지방회는 개체 교회의 담임자와 장로, 구역 대표자 및 연합회 대표, 연회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례 회의다. 의장은 감리사로 연회에서 지방회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연회 감독에 의해 임명된 2년 임기의 감리사는 현재 민경신 목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남연회에 속해 있는 강남지방회에는 광림교회를 포함 13개 교회와 북중미 지역 교회 58개 교회를 합한 총 71개 교회가 있다.

민경신 감리사 직무대행이 담당하는 1차 회집은 개회예배에 김주송 목사가 봉헌기도, 갈릴리성가대 찬양, 설교는 이홍헌 목사가 할 예정이다. 이어 별세자 부름 순서로 지난해 소천한 광림교회 서일영 장로와 한영희

장로에 대한 헌화 시간과 김정석 감독회장이 축도를 하게 된다. 이어 개회 선언과 함께 사무 처리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 모임을 한 뒤 1차 회집을 마치게 된다.

2차 회집에서는 사무 처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내 각종 활동을 열심히 한 성도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선교부에서 전도상은 임옥주 권사, 성경 다독상은 김경애 권사, 사회 평신도 부분에서는 이안수 장로가 공로상을 김영기 권사가 봉사상을 받는다. 15년 장로 근속상은 박영노 장로, 이안수 장로, 정하원 장로가 받는다.

3차 회집에서는 은퇴 장로 찬하 예식을 갖는데 유선재 장로가 은퇴를 한다. 유 장로는 2014년에 광림교회 장로로 피택되어 유년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영아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득섭 기자

감독회장 동정



- 2/11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사회
- 2/12 수요치유의 신학
- 2/13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위 수여식
- 2/17~21 아시아감독회의
- 2/23 남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및 시상식
강남지방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그리스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71 장로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발자취를 따라가다



빌립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현장을 찾아서 71 장로 부부는 감독회장 내외분을 모시고 2월 2일~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그리스를 다녀왔다.

고린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던 도시이며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도시, 그곳에 첫 순례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와 경제적 부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이 느껴졌다. 현재는 아폴론 신전의 기둥과 터가 남아 있다. 성경공부가 아닌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성지 순례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겐그레아 항구를 둘러보고 아테네로 이동했다. 아테네, 아레오 파고스 언덕에 올라갔다. 유럽 최초의 법정이라고 하는 이곳에

서 도시와 스토아 학당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 신들의 도시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며 이 언덕을 오르내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언덕 입구에 사도행전 17:22~34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있다. 파르테논 신전과 극장을 보고 빌립보로 향했다. 드로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바꿔 떠났던 사도 바울이 도착한 네압볼리 항구를 지나 우리도 빌립보에 도착했다. 빌립보는 부유했던 도시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다란 극장이 보존되어 있다. 이 극장은 구조적으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감독회장께서는 관객석으로 뛰어 올라가서 우리의 말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높은 관객석 3분의 2 높이가 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것 같다.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 물가로 나왔던 사도 바울이 물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곳에 아직도 힘찬 물살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곳에 루디아 기념관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집쟁이 여종에게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주인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작은 감옥 터가 남아 있다. 빌립보는 여러 번의 지진으로 터와 기둥만 남아있지만 아고라 광장과 집 터와 교회 기둥들을 보면서 부유했고 발달한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도원 내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려서 그 당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화가 있고 지금도 수도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이자 남동부 유럽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우리에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에게해가 보이는 노천카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노을로 아름다워진 바다와 하늘을 감상하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을 통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다짐했다.

이종현 장로(71 장로)



빌립보 극장



빌립보 바울의 감옥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의 사자상을 보고 아볼로니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비마(설교를 하던 강단)가 있는 곳에 갔다.(행 17:1)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 비마터에서 감독회장님을 함께 기도하자 하셨다. 지금은 비마터만 남아있는 쓸쓸한 장소이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끼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우리도 복음의 부르심 받은 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길 다시 한번 결단했다.

메테오라,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박해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교회 수도사들이 숨어지냈던 수도원이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지키려고 했던 숭고한 신앙을 기념하여 세워진 수도원이 현재 6곳만이 남아있다. 미로처럼 연결된

2025 사랑부 새학기 성경학교 '말씀탐험대'



2025년 사랑부 새학기 성경학교가 오는 3월 9일(주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성경학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중심으로 '말씀탐험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사랑부 학생들이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교사들은 성경학교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며, 좋은 날씨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자원봉사자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은 무엇보다 예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찬양과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깊이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탐험 프로그램
올해 성경학교의 말씀 체험 프로그램 키워드는 '활발한 탐험'입니다. 따뜻한 3월의 날씨 속에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가 말씀 카드를 찾고 찬양 가사를 외우며, 몸으로 말씀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학습이 아닌, 직접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랑부 진선규 목사는 "새학기 성경학교를 통해 감추어진 복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학생들과 함께 누리하고자 합니다.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값진 보화인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먼저 복음을 경험한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부 학생들이 예배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부 공동체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빈 전도사(사랑부)

청년부

2025 겨울 수련회 '#OOTD'로 영적 도약

하나님이 주신 참된 방향을 찾다



LFC 청년부는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OOTD (Obeying Our True Direction)'를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열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이 굳어진 마음을 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동탄광림교회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여 총 32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다

첫째 날에는 김주송 목사가 경진생활 강의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일상에서 신앙을 더욱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광리 목사(우리는교회)의 설교는 청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잊고 있던 하나님 사랑을 되살렸다.

장재호 교수의 '창조론과 진화론' 강의는 과학과 신앙을 연결하며,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회복과 결단의 시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도 이어졌다. 첫째 날 진행된 '그리운 예루살렘' 코스 게임은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10개의 청년부 교구가 준비한 '제1회 교구별 성가제'는 각 팀이 기도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며,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 되어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서진 목사(온누리교회)의 말씀은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었으며, 기프티드찬양팀의 찬양은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했다.

하나 되어 드린 기도

김주송 목사가 인도한 기도회는 청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0교구 김남호 교구장은 "기도할 때, 속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청년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게 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청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번 수련회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마무리했다.

국내선교팀 김무성 팀장은 "강사 목사님들과 찬양팀, 프로그램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느꼈고,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되어 숙식이 더욱 편안했고,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 앞으로도 LFC 청년부가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라기를 함께 기도했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새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한 속장 교육



광림교회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광림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가족이 온전히 구원받고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새가족을 담당하는 속장들이 속회를 통해 새가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속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새가족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주일)부터 23일(주일)까지 2주간 새가족이 속한 속회의 속장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새가족들이 몇 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듯, 속장들도 사명감을 갖고 속회를

통해 새가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주일예배 외에도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고 영적 실천을 하였다. 이 모임이 오늘날의 속회(Class Meeting)가 되었으며, 광림교회는 매주 모이는 속회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2월 16일 13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 교육에서 권순정 목사는 '속회와 속장에 대한 이해(개념)'에 대해 강연했다. 권순정 목사는 "속회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새가족 속회의 속장은 새신자의 영적 성장과 교회 적응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잘 돌봐야 합니다"라며 속장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나누며, 새가족 양육을 위해 속장이 먼저 바울과 같은 좋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며, 우리의 영적 자녀입

니다. 우리는 새가족을 잘 섬겨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가족 속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매주 소통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가족 속장 뿐만 아니라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2월 23일(주일) 새가족실에서 오전 9시에는 30분간 한정희 사모의 '속장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있다. 오후 1시 30분에는 한상국 장로가 새가족 속장들이 속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새가족 속회 운영 매뉴얼'에 대해 교육한다. 새가족이 광림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박희운 기자

목회현장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2024년 8월 저희 4선교구 성도님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 서로 어색했던 모습도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증보하며,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만나 첫 연합 속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재능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은사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선교구를 이끌어 갈 때에 항상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중심에 두고 목회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기쁘고, 성도님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슬픔의

감정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더욱 더 그 성도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껴진 것은 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구나,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구나를 느꼈습니다.

목회 가운데에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공감하며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목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더욱더 4선교구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기뻐해 드리며 함께 울 것입니다. 선교구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선교구를 넘어 광림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한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참된 사랑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산돌 목사(4선교구)

광림남교회

Dream? 하나님께 드림!



광림남교회 중고등부는 지난 2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Dream?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광림남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진행하였고, 교회에서 1박을 하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개회예배 말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요셉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릴레이로 미니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실패하면 바로 다음 팀으로 기회가 넘어가고 한 번에 다 성공했을 때 그 팀이 우승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사건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꼭 필요한 시련이었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광림남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영

진 목사님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집회 후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대예배실의 강단 위로 학생들이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아침 경건회와 주일 말씀은 김현진 전도사가 하나님의 꿈에 자신을 드리는 것, 영혼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설교하였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휘원 전도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두 번째 겨울성경학교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지난 2월 7일~8일까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겨울성경학교를 본당 교육국과 마찬가지로 'Dream?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요셉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대하며 함께 마음으로 모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평상시 학업으로 인해 지쳐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특별활동으로 유치부는 '아이 러브 밀가루',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서울랜드를 방문해 눈썰매와 여러 놀이 기구를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탄 성전의 학생들은 하루하루 남다른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성경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일 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자세히 다루다 보니, 학생들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하여 많은 청장년, 청년들이 교회학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과 노력, 기도가 뒷받침되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학교로 나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의 말씀처럼 더욱 힘을 내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동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내는 교회학교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형준 전도사(동탄광림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24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라에시덕 선교사



레이드(Laird, Miss Esther J.
라에시덕, 羅愛施德) 1901 ~ 1968

병든 한국 아기를 등에 업고 다니던 미국 아주머니 라에시덕 선교사. 그녀는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미혼 선교사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국인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알렌, 스크랜턴 등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에스터 레이드(Esther J. Laird)'.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덕을

베훈다라는 뜻의 '라에시덕(羅愛施德)'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교와 드류신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감리회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원주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나부인'으로 불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원주 기독교여자사회관을 세워 부녀자 사업과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에 있던 라에시덕 선교사의 사택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환자가 많아지자 원주 남산 위에 결핵요양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쳤으며, 그녀의 제자들은 훗날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 복지 사업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최규하 전 대통령, 장재용 전 스페인 대사,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전 총재를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1940년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을 때도 그녀는 미국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며 한국에 다시 돌아올 날을 준비했고, 1947년 다시 내한하여 원주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중 1950년 한국전쟁으로 잠시 귀국, 그리고 1952년 휴전의 기미가 보이자 한국에 돌아와 이번에는 대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올 때, 의료 장비와 건강 진료 차량 등을 갖고 왔고, 대전에 결핵요양원을 세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 구제 사업, 장학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의 사회사업은 봉사자 아닌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1966년 지병인 파킨슨병이 악화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미혼이었지만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환자들에게는 의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친구로 저마다의 삶을 보듬어주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 선교사님은 누구에게나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을 나눠 준 사랑의 화신이였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소외된 자의 친구였던
라에시덕 선교사 "너랑 나랑 똑같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거룩한 울림을 지키는 사명

음악위원회 위원장 - 장대진 장로



성가대는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예배당은 거룩한 은혜로 가득 차오른다. 그 아름다운 하모니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이 숨어 있다. 광림교회 음악위원회 위원장인 장대진 장로를 만나, 찬양을 통한 섬김의 의미와 그 사명의 가치를 나누었다.

성가대로 오랜 시간 섬기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시나요?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

하는 자리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성가대를 섬기면서 총무, 단장, 대장의 역할을 맡아왔고, 성가대가 더욱 부흥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젊은 대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가대가 앞으로도 힘 있게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가대로 섬기면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죠. 찬양이 단순한 노

래가 아니라 기도로 승화되는 경험을 할 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 찬양을 언급하며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어려운 점이라면 성가대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조화롭게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하나의 울림으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성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가대의 주요 활동과 연례 행사는 무엇인가요?

광림교회 성가대는 부활절, 성탄절, 어버이주일, 추수감사절, 성금요일예배, 송구영신예배 등 중요한 절기에 맞춰 특별 음악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음악예배를 통해 성가대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성가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성가대로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준 높은 찬양을 준비하며,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예배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가대 봉사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광림교회의 성가대는 단순히 찬양만 부르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선택받은 자리이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기도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더욱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성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현재 성가대의 연령층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젊은 대원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성가대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딘 부분이 있지만, 광림교회 성가대는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기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흥하여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사명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찬양의 울림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7



언약의 증표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5)

아브람의 나이 아혼아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에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



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지만,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 온 종도 마찬가지로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와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래를 이제 사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혼잣말을 하였다.

◀ 아브라함과 사래_ 사라는 히브리어로 ‘여주인’이라는 뜻이다. 처음 이름은 사래였으나 이삭을 잉태한 후 사라고 개명했다.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으나 그의 아내가 되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죽는 날까지 길고 파란 많은 유랑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며 그의 좋은 반려자 역할을 하였다.

“나이 백 살 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열두 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고 그를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은 물론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 온 종까지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

▲ 언약의 증표_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한다.

았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혼아흠 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